

‘월드컵 모드’ 흥명보호, 7일 미국과 첫 평가전

미국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카스트로프 데뷔전 관심
황인범 부상 변수로 중원 ‘플랜B’ 가동...주장 손흥민 역할도 주목

10회 연속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하고 2026 북중미 대회를 준비하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미국을 상대로 ‘본선 대비 체제’ 첫 모의고사를 치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7일 오전 6시 미국 뉴저지주 해리스의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미국과 친선경기에 나선다.

한국 축구가 미국과 남자 성인 대표팀 맞대결을 벌이는 건 2014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친선경기(0-2 한국 패) 이후 11년 7개월 만이다.

6월에 열린 아시아 3차 예선에서 북중미 월드컵 진출을 확정된 홍명보호는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고 본선 경쟁력을 시험하고자 이달 미국·멕시코(10일·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와의 대결을 준비했다.

대표팀은 7월 국내에서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을 치렀으나 FIFA가 정한 A매치 기간이 아니라서 해외파를 차출할 수 없었기에 ‘정에 멤버’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월드컵 본선 대비는 이달부터인 셈이다.

FIFA 랭킹 15위로 우리나라(23위)보다 높은 북중미 강호 미국과의 대결에서 대표팀 최대 화두는 ‘국의 출생 혼혈 대표 선수’의 첫 등장이다.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독일 태생의 옌스 카스트로프(뮌헨글라트바흐)가 주인공이다.

독일 연령별 대표로 뽐낸 경험이 있고 최근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 데뷔해 성장하고 있는 카스트로프가 월드컵 본선을 10개월 남긴 시점에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면서 월드컵까지 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홍명보 감독은 팀 내 기존 중앙 미드필더 자원보다 훨씬 도전적이며 거친 성향의 카스트로프가 새로운 옵션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며 그를 발탁해 시험대에 올렸다.

미국에 입성하자마자 대표팀 적응에 힘을 쏟고 있는 카스트로프가 곧장 데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주전 중원 사령관인 황인범(페에노르트)이 종아리 부상으로 이번 달 합류하지 못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황인범을 비롯한 주축 선수들의 공백은 월드컵 본선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대표팀은 카스트로프와 더불어 백승호(비명암시티), 박용우(알아인), 김진규, 박진섭(이상 전북) 등을 적절하게 기용하며 ‘플랜B’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FC로 이적해 미국 생활에 적응 중인 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활약도 관심사다.

이번 A매치를 앞두고 7년 동안 손흥민이 맡아온 대표팀 주장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뒷말이 이어졌다.

다만, 대표팀은 이말에도 변함 없이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찰 것이라며 공언하고 분위기를 다잡으며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홍 감독이 이번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며 손흥민의 ‘역할 변화’ 가능성도 시사했던 만큼 그가 어떤 포지션에서 얼마나 뛸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역대 11차례 미국과의 남자 성인 대표팀 상대 전적에서는 한국이 5승 3무 3패로 앞서 있지만,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10년도 넘게 지난 터라 이번 경기와 연결 지어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개최국 자격으로 월드컵 본선에 자동 출전하는 미국은 이번 A매치 기간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맞이해 아시아 팀과의 대결에 대비한다.

6~7월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골드컵에서 멕시코와의 결승전에서 저 준우승했던 미국은 그 대회 전 튀르키예, 스위스와의 평가전에서 연패당했던 터라 잠재적 월드컵 상대국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한다.

A매치 경험이 거의 없는 선수들을 여럿 불러들여 점검에 나선 미국에선 골드컵을 건너뛰었던 ‘에이스’ 크리스천 폴리식(AC밀란)이 복귀해 중심을 잡는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골키퍼 조너선 클린스만(체세나)도 이번 미국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대표팀을 이끄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의 토트넘(잉글랜드) 시절 ‘은사’로, 이들의 만남에도 시선이 쏠린다. /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아이칸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한국 축구 대표팀 훈련에서 손흥민과 옌스 카스트로프가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2026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역대 첫 ‘유동 가격제’ 도입

FIFA, 60달러~6730달러 책정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가격이 최저 60달러(약 8만3000원·조별리그)에서 최고 6730달러(936만원·결승전)로 책정됐다.

다만 ‘유동 가격제’(dynamic pricing) 도입으로 가

격은 변할 수 있다.

FIFA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6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판매 일정을 발표하면서 “오는 10·19일 비자 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입장권 1차 사전 추첨 응모를 시작한다”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일부터 이메일로 당첨자를 통보하고 10일 1일부터 지정된 시간대에 티켓을 살 수 있다”고 발표했다.

2차 판매는 ‘사전 추첨 방식’으로 10월 27~31일 진행되고, 마지막 3차 판매는 12월 5일 조 추첨 이후 이뤄진다.

FIFA에 따르면 조별리그 입장권 가격은 60달러부터 시작하고, 결승전 입장권 가격은 최대 6730달러다.

이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 69달러~1607달러보다 크게 상승한 가격이다.

하지만 FIFA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역대 처음으로 ‘유동 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실제 입장권 가격에 변동이 생길 전망이다.

FIFA는 지난 6~7월 미국에서 열린 클럽월드컵에서 입장권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유동 가격제’를 적용했다.

이 정책으로 첼시(잉글랜드)와 플루미니시(브라질)와의 준결승전 입장권 가격은 예초 473.90달러에서 13.40달러까지 크게 떨어지기도 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이에 대해 “이 정책은 입장권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3쿠션 강자들 광주에 온다...세계3쿠션당구월드컵 개최

11월 3~9일 빛고를 체육관

11월 광주에서 세계 최정상급 3쿠션 선수들의 대결이 펼쳐진다.

세계캐롬당구연맹(UMB)이 주최하고 대한당구연맹(KBF)이 주관하는 2025 세계3쿠션당구월드컵이 11월 3일부터 9일까지 빛고를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세계랭킹 1위부터 14위까지의 선수가 의무적으로 출전하는 최고 권위의 국제 대회로 22개국 150여 명의 선수가 광주에서 총상금 2억원과 세계랭킹 포인트 80점을 놓고 경쟁을 펼치게 된다. 세계 최초로 ‘3쿠션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세계 1위’ 조명우(서울시청)와 허정환(경남당구연맹·10위), 김행직(전남·진도군청·14위)이 시드를 받아 안방에서 우승을 도전한다.

‘3쿠션 4대 천왕’으로 통하는 닉 아스퍼스(네덜란드·2위), 에디 맥스(벨기에·3위), 프레데릭 쿠드롱(벨기에·20위), 토르비온 브롬달(스웨덴·19위)의 규싸움도 펼쳐진다.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예선이 진행된 뒤 7일 32강 조별리그가 전개된다. 이어 8일 16강과 8강 토너먼트가 치러지고, 9일 4강에 이어 ‘우승자’가



확정된다.

한편 KBF는 8·9일 광주 국제당구장(일반부)과 신장당구장(유·청소년부)에서 국내 예선을 갖고 본선에 나설 선수를 추가 선발한다.

광주에서 대회가 열리는 만큼 광주 대표선수들에게 유치지역 추천 시드가 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광주 지역 예선을 통과한 김연석 광주당

구연맹 전무이사들을 포함해 최완영, 박삼구, 김현종 등 4명이 본선에 직행한다.

국내 예선에 앞서 또 다른 경쟁도 펼쳐진다. 6·7일 2025 KBF 디비전리그 D2 캐롬 전국 리그 3·4라운드가 광주에서 열린다.

디비전리그(D2)는 생활체육 5부부터 엘리트체육 2부까지 겨루는 승강제 리그로, 1~2라운드는 지난 8월 경기 시흥에서 진행됐다. 앞서 수도권에서 열린던 대회가 광주에서 치러지

면서 지역의 당구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를 전망이다.

박종규 광주당구연맹 회장은 “당구 종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2025 광주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등 당구를 통해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제4회 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에서 종합 3위를 기록한 전남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전남, 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 종합 3위

금 3·은 1·동 2개 획득

전남 장애인선수단이 ‘제4회 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에서 종합 3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전남 선수단은 최근 경기도 수원특례시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44명의 선수단은 8개 종목 중 골볼, 저시력축

구, 쇼다운, 한궁, 실내조정 등 5개 종목에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쇼다운 남녀부 동반 우승에 성공한 전남은 한궁 전맹 여자부 우승, 골볼 남자부 준우승, 실내조정 여자 개인전 3위와 혼성 단체전 3위 등의 성과를 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의 지원 속 끈끈한 팀워크를 발휘한 전남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이어 종합 3위에 자리했다. /김여울 기자 wool@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광주·전남수채화협회 : 빛이 흐른다

일시 : 2025-08-14(목) ~ 2025-09-14(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제7회 GAC 공연예술축제 그라제 광주시립교향악단 398회 정기연주회
'The Echo of Peace'

일시 : 2025-09-12(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